

연등제만큼 신명나고 볼거리 많은 세계의 축제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열리는 연등 축제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축제를 넘어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해마다 연등축제에는 내·외국인 30여 만 명이 참여해 세계에 우리 민족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봄축기간 연등축제를 계기로 종교, 문화, 지역특색, 전통, 역사적 사건 등에서 유래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을 살펴봤다.

이은 기자

■ 세계의 카니발

카니발(Carnival)은 라틴어로 '고기'라는 뜻의 카르네(Carne)와 '격리'라는 뜻의 레바레(levare)가 합쳐진 말로 '고기(육식)를 떠난다'는 뜻이다. 때문에 사육제(謝肉祭)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 축제는 기독교, 특히 가톨릭 문화권에서 사순절 금육기간 전에 살것 술과 고기를 먹고 즐기려는 뜻에서 시작된 잔치이다.

카니발은 1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축제와 주현제(主顯祭, 12월 6일)를 합해, 유럽의 북쪽 지방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남쪽에서는 야외 축제인 카니발이 됐다.

카니발 행사는 기원적으로 옥외에서 가정(假裝)·가면행렬을 하고, 종이 인형으로 된 우상을 장식 등으로 썼는데,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농촌에서는 카니발이 봄을 맞아 풍작과 복을 비는 축제가 되어, 악령에 대한 위협으로 가면·가장을 했으나, 도시에서는 옥외의 놀이가 되어 종이 인형의 우상 따위를 함께 끌어내며 즐기는 행사가 됐다.

옛날에는 로마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이탈리아의 피렌체, 프랑스의 니스, 독일의 쾰른, 스위스의 바젤 등 로마 가톨릭의 여러 나라에서 성행한다. 이 밖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등지에서도 성행하지만, 개신교 국가에서는 별로 행하지 않는다.

꽃과 빛의 축제 프랑스 '니스 카니발' (Carnaval de Nice)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의 전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카니발로 알려져 있다. 지중해 최고의 휴양도시인 니스는 카니발이 열리는 2월이 되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다. 이 축제는 매년 1500명이 동원된다. 바다를 향해 최고급 호텔이 줄지어 늘어진 거리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Promenade des Anglais)'에서는 화려한 꽃마차 퍼레이드가 열리고, 이 지역 최고의 미녀들이 환한 미소와 함께 꽃다발을 던져준다. 중심가인 장 메드센 거리(Avenue Jean Médecin)에서는 가정행렬이 벌어지고, 어둠이 내리면 마세나 광장(Place Masséna)에선 가요등 15만개의 역동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악단과 무용



프랑스 니스 카니발

단 20여 대의 화려한 꽃마차와 함께 니스 거리를 수놓는다.

니스 카니발의 역사는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 1294년 "양주 공작이며 프로방스 백작인 샤를로 2세가 카니발의 즐거운 날들을 보내기 위해 니스에 체류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카니발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우아한 축제 '베네치아 카니발' (Carnevale di Venezia)

매년 2월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카니발의 계절이 돌아온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부두와 산마르코 광장을 가득 메운다. 형형색색의 가면과 환상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의 하나인 산마르코 광장을 무대로 우아한 포즈를 취한다. 카니발 기간 중에는 누구도 그 자신의 가면을 쓰는 기쁨과, 변장한 옷을 입는 매력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가면복장으로 참여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면복장 차림의 자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자신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타인의 가면복장과 행동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누린다.

독일 '쾰른 카니발' (Karneval in Köln)

매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구시장터에서의 개

막행사에서 시작되어 재의 수요일 전까지 3개월이 넘게 열린다.

쾰른 카니발은 1234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자랑할 만한 행사다. 쾰른 축제의 절정은 재의 수요일 전 월요일에 있는 행사로(Rosenmontagsumzug) 꽃수레와 기마대행진이 수백만의 구경꾼들에 환호에 답하며 사탕 등을 던져준다. 이 축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의 수요일날 축제 기간 동안의 방탕과 죄에 대한 회생양으로 누벨인형을 태우는 것이다. 누벨태우기는 5월제나 하지축제의 전통을 이어받은 주술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의식이라기 보다는 현 사회에서는 방탕과 일탈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한 상징으로 해석된다.

세계 3대 축제 브라질 '리우 삼바 카니발'

카니발 중 가장 유명한 축제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매년 2월 말~3월 초 4일간 열리는 리우 삼바 카니발이다.

리우카니발은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의 사순절 축제와 아프리카 노예들의 전통타악기 연주와 춤이 합쳐져 생겨났다. 1930년 거리축제를 시작돼 학교들이 설립되고 학교별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지금의 카니발로 발전하게 됐다. 리우카니발의 핵심은 삼바퍼레이드이다. 삼바 무용수들이 퍼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리를 '삼바드로

모'라고 하는데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삼바 축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정부는 카니발이 열리는 4일간을 국경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삼바 학교가 번창해 있고 4일간의 축제를 위해 1년 여 간의 준비를 하는 국민들의 모습 등이 그 예이다.

삼바 퍼레이드를 관람하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 10만여 명, 국내 30만여 명이 온다. 카니발에는 사회계급의 경계가 무너지는데 남성과 여성의 경계도 무너진다. 무용수들의 상당수가 여장 남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브라질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동성 연애를 상징하며 사회 전반에 깔린 평등의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 기타 서양 종교 축제

성 패트릭데이 (St. Patrick's Day)

아일랜드에 처음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아일랜드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축제로 매년 3월 17일에 열린다. 18~19세기부터 성 패트릭의 날 아일랜드 여러 도시에서 악단행렬이 시작됐다. 이후 이 행렬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아일랜드인 이민자들이 정착한 어느 곳에서나 펼쳐졌다.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토끼풀 이파리를 가지고 삼위일체의 개념을 설명했다고 전해져 토끼풀과 녹색 띠 등을 차장하고 술을 마시며 축제를 즐긴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성 패트릭데이



브라질 리우 삼바 카니발

다. 이날은 시내 전체가 온통 초록 물결이고 심지어 관광객들의 머리색까지 초록이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토끼풀을 달고 다니고 몇 군데 분수에서는 초록색 물이 나온다. 심지어 초록색 맥주를 파는 술집들도 있다.

미국 추수감사절 메이시퍼레이드 (Macy's Parade)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미국에서는 거대한 잔치가 벌어진다. 외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칠면조 요리를 차려놓고 멀리 사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를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날이다.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호(號)로 신대륙에 이주한 반(反)영국 국교회파 개신교(핍그림 파더스라 함), 첫 수확을 하나님에게 바쳐 감사한 일에서부터 비롯된 국민적 축제일이다.

매해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 아침 뉴욕 시내의 전 세계 관광객들과 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올해로 벌써 80여 회째를 맞는 메이시(Macy) 백화점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때문이다. 참여 인원 1만명, 관람객만 300만 명이 넘는 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뉴욕 맨해튼을 찾는 사람만 80만 명이다. 이 퍼레이드는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며 같은 시간 세계 모든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대 이벤트다.

메이시퍼레이드는 뉴욕 맨해튼 32번가 메이시 백

천년 가야의 전설을 간직한

봉화상 정토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법회

□ 5월 23일(월) 오전 11시
□ 봉화상 정토원 수광전

추모법회에 이어 오후 2시에는 봉하마을과 묘역에서 '제2회 추모회'가 열립니다.



호미 들 관음보살상

원장 **선진규**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번지
☎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불기 2555년(2011) 신묘년 부처님 오신날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한불교조계종

갑 사

주지 태진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8981~2 www.gapsa.org

화점의 직원용 행사에서 비롯됐다. 20세기 초반 메이시 백화점에는 주로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 직원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활발한 상업 도시로 일 자리가 많아져서이기도 했지만, 대서양을 건너오는 상당수 이민선이 뉴욕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뉴욕은 다양한 이민자들로 넘쳐났고 맨해튼 한 복판의 메이시 백화점에 그들이 일자리를 얻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 근무 분위기 속에 회사 측은 이민자 직원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필요로 했고 그들이 고향을 가장 그리워하게 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각자의 고국을 상징하는 치장과 장치를 하고 백화점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게 했다.

1924년 처음 시작된 메이시 퍼레이드의 내용과 형식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지금은 화려한 마칭 밴드와 다양한 퍼포먼스, 거대한 풍선이 상징이 됐지만 초기의 메이시 퍼레이드는 뉴욕 동물원의 협찬을 얻은 거리 사파리 형식이었다. 그러다 경쟁업체와 시민단체에서 퍼레이드 중 동물들이 시민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메이시 백화점은 커다란 동물들을 대신할 아이디어를 찾았다. 그 대안은 바로 동물모양의 거대한 풍선이었다. 거대한 풍선들은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과 함께 사자, 호랑이, 코끼리 같은 실제 동물이 주는 느낌과 완전히 다른 감동을 안겨 주었다. 어린이들의 열광적인 호응이 이어지면서 가족의 개념을 새로이 되새기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멋지게 맞아 떨어지도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메이시 퍼레이드는 2차대전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뉴욕의 추수감사절을 장식해오며 뉴욕만의 행사가 아닌 미국을 상징하는 거대한 이벤트로 확실한 자리를 잡아나갔다. 한 백화점의 이민자 직원 위로용 행사가 뉴욕이라는 도시의 상징을 넘어 지구촌 최대의 이벤트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대성공이라 할 수 있다.

■ 아시아의 종교 축제

말레이시아의 타이푸삼(Thaipusam)

타이푸삼은 무가신(Lord Murga)과 수브라마니암신(Lord Subramaniam)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힌두교의 참회와 속죄의 고행일이다. 타이푸삼은 타이와 푸삼의 합성어로, 타이는 타밀(Tamil)의 10번째 달인 신성한 한 달을 나타내며,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의 기간에 해당하고 푸삼은 축제 기간 중 가장 높게 뜨는 별을 의미한다. 사흘에 걸쳐 진행되는 타이푸삼은 첫째 날 사원과 신상을 뿔뿔로 꾸미는 것을 시작으로, 둘째 날 각 지역의 사원까지 황소가 이끄는 꽃마차에 수브라마니암 상을 싣고 신자들이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이 이어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셋째 날의 신자들이 카바디(Kavadi)라고 불리는 화려한 장식의 등짐을 메고 주문과 드림을 소리에 맞춰 힌두사원을 돌게 된다. 이날 수백 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이 고행을 몸소 실행하는 예식이 거행된다. 길게는 1m에 이르는 가느다란 쇠꼬챙이를 허, 뺨 등에 찔러 관통시키는가 하면 날카로운 갈고리로 등과 가슴의 피부에 피어싱하는 아주 독특한 그들만의 풍습을 볼 수 있다. 카바디는 삶이 주어진 짐을 의미하는데, 계단을 오르는 동안의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참회와 속죄라는 타이푸삼의 참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타이푸삼은 셀랑고르, 페낭, 네그리 세빌란, 조호, 페락에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추수감사절 미국 뉴욕에서 추수감사절에 열리는 메이시 퍼레이드(Macy's Parade)



프랑스 망통레몬축제



인도 색깔축제 '홀리'



말레이시아의 타이푸삼

필리핀 시룰록 축제

1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시룰록축제는 아기 예수상인 산토니뇨의 탄생과 가톨릭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1월 셋째 주 일요일에 개최된다.

행사 기간에는 화려한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거리 퍼레이드에는 수십여 개의 참가팀이 화려한 불거리를 선보이는데 브라질 리우 축제와 비교될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복장단에 맞춰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물러나는 독특한 춤사위는 구경하던 관광객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기간 필리핀 전역에서 이곳 세부로 산토니뇨를 보기 위해 많은 순례자들이 몰려온다.

인도의 색깔축제 '홀리'

매년 3월에 인도와 네팔에서 열리는 힌두교의 봄 축제이다.

첫째 날은 악마 울리카를 태운다는 의미로 홉불을 지피고 둘째 날은 사람들이 서로 컬러파우더와 물을 뿌린다.

힌두교신자들은 조용한 사원에서 이날만큼은 서로 뛰어다니고 춤을 추면서 형형색색의 페인트를 뿌리고 밀가루와 물을 뿌린다.

이들의 의식은 힌두교의 전설에 따라 이루어진다. 팔라흐라드는 악마의 신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창조주인 비쉬누를 추앙했다고 한다. 악

마의신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 홀리카라는 자기 동생에게 시켜 아들을 안고 불속에 들어가라고 한다. 홀리카는 불에 타지 않는 마법의 옷을 불속에 들어가지만 타죽고 팔라흐라드는 멀쩡하게 살았다고 한다. 악마의 아들은 비쉬누의 제자가 됐고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축제이름도 홀리 축제라 하게 됐다.

태국의 물 축제 '송크란 축제'

송크란 축제는 매년 4월 13~15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가장 큰 물 축제다.

가장 화려하고 열광적이며 큰 규모만큼 불거리도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이 치앙마이의 화려한 꽃차를 보기위해 모여든다고 한다. 축제는 사찰에 대한 공물 바치기를 비롯해 집안대청소, 가장행렬의 가도행진, 미인선발대회등 각 지역 특색에 맞춰 진행된다.

송크란 축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다. 물 뿌리기는 불교국가 태국에서 부처의 축복을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청소하는 행위에서 유래 된 것이며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뜻으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데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 그 밖의 세계적 축제

홍콩 등불축제

홍콩 등불축제는 매년 9월 30일~10월 8일 홍콩섬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다.

중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 중추절은 서양의 추수 감사절과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중추절에는 홍콩의 상점과 거리는 형형색색 화려한 등불로 특별히 장식되며 어린이들은 늦게까지 놀도록 허락되는 날이기도 하다.

부모님과 함께 월병을 먹기 전 높은 곳으로 올라 등불을 밝히고 동근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며 이외에 다양하고 화려한 등불행진 및 특별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린다. 가장 큰 행사는 홍콩 섬 타마르 광장에서 개최되는 '등불 카니발' 이다.

프랑스 망통 레몬축제

망통은 프랑스 남부 지중해연안에 위치한 휴양도시이며, 레몬 생산지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겨울에는 니스처럼 피한지로 각광받는 곳이라, 한겨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매년 2월 열리는 망통 레몬축제는 1934년에 시작됐으며 지역의 특산물인 레몬이 축제의 소재이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이브가 낙원에서 레몬을 하나 훔쳐 이곳 망통에 심었다고 한다. 망통의 레몬은 그 맛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저장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매년 2월에 개최되는 망통 레몬 축제는 오렌지와 레몬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하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농산물 축제이다.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에서 벌어지는 농산물 축제를 보기 위해 주민의 10배에 해당하는 30만 명이 이곳을 방문한다.

이 축제는 매년 동화나 만화 작가들의 작품을 소재로 구성된다. 야간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있고 낮에는 낮대로 화려한 꽃들과 레몬, 오렌지로 장식한 차량들의 퍼레이드가 있어서 이름난 큰 축제 못지않은 재미가 있다고 한다.

스페인 토마토 축제 라토마티나(La Tomatina)

토마토 축제는 토마토 가격이 폭락해 농부들이 시의원들에게 분풀이로 던진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1944년 빠요 가르세로 산체스라는 박사와 동료들이 한 악단의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를 하며 지나가자 토마토를 던졌고, 트럼펫 연주자도 같이 토마토를 던지게 돼 동심으로 돌아가 토마토 전쟁이 벌어졌다는 설이 있다. 토마토 축제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스페인 부늘에서 열리며 축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약 10만kg의 토마토를 던지는 대로 던지는 축제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고 한다.

일본 삿포로 눈 축제

1950년 제1회 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2월 초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난 삿포로 시민들을 위로하고 춤과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일본 최대의 축제인 눈꽃축제에 기간에 동원되는 눈의 양만도 5톤 트럭 7000대 분량이며,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2000년에 216만 8000명, 2001년에 234만 4000명이 찾았다.

독일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옥토버페스트의 유래는 원래 1810년 18세인 테레제 공주와 후에 루트비히 1세가 된 왕자와의 결혼을 축하하며 시작됐다. 경마 등의 불거리를 마련해, 인근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돌린 것에서 유래한다. 이듬해 농작물 전시회가 추가됐고, 승마, 사격, 브라스 밴드, 민속춤 등의 경기와 말, 소 등의 가축 품평회가 열리는 대규모 지방 축제로 발전하기도 했다.

1850년 후에는 테레제 공주의 이름을 딴 정원에서 열리는 축제인 맥주축제를 마련하고, 여러 놀거리를 마련하면서 유명한 맥주 축제의 시작이 됐다고 전한다. 현재는 세계적인 규모의 맥주축제로서 제일의 규모를 자랑한다. 처음에는 10월에 개최되 10월축제라고 했지만, 이 시기에 뮌헨 지역의 날씨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앞당겨져 대개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작해 10월 첫 주에 종료된다.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영국의 약650가지의 예술 문화 축제 중 영국의 문화를 대표하며, 규모와 수준에 있어서 최고를 자랑한다. 또한 에딘버러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유명한 전문 음악인, 연극인, 오페라 등으로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 참신한 신진 작가들의 연극, 음악 작품들이 런던이나 세계의 다른 수도로 진출하기 전에 에딘버러에서 초연되곤 한다.

에딘버러에서 전세계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단 등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예술의 세계에 심취되어 보는 것도 한여름의 낭만을 즐기는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佛紀 2555年 辛卯年 Buddha's birthday |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지장불교근본도량 공덕원
주 지 효선
신도회장 양반야등
사부대중일동
http://www.gongdukwon.net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 FAX 051)625-3886

대한불교조계종
운수사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사상구 모라3동 산5번지
TEL 051)317-5671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문수불교문화원
회주 법홍
주지 지원
신도회장 최묘각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623-3648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주지 향운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6동 843번지
중무소 051)467-3316
팩스 051)467-3338

부산의 음성 포교공양
부산불교청공여성중창단
단장 정성민
반주자 김보성
소프라노 박미정 이경미 임애라
알토 김진희 박귀순
총무 이옥숙
■ 문의 : 010-4558-8728

호행실천도량
청룡암
울산광역시시암연합회 부회장
울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주지 중현
■ 울산시 북구 매곡동 산 35번지
TEL 052)282-2800

전등사·보타선원
(구. 보타원)
회주 석성보광
주지 수인
관음회장 안보광화
거사법회장 안덕우
신도일동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78
TEL 051)243-0048~9 / FAX 242-4109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
6월 11일 흥법사에서 만남시다.
부산지구·지회 회장단일동
■ http.cafe.daum.net/kybabs
TEL 051)861-5241

덕운사
주지 경산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 672-2
TEL 051)513-1373

삼천해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로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경전과정 -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충
신도회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TEL 051)809-0926 / FAX 803-0188